

“나눔 의미 되새긴다”...아름다운가게, 김명순 나눔의날 행사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 광주목포본부 광주점단점은 지난 29일 자원활동가들, 임직원, 파트너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김명순 나눔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김명순 나눔의날’(매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지난 2003년 아름다운가게 광주점단점의 시작부터 2023년까지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던 고(故)김명순 활동천사의 소중한 활동을 기리고 나눔과 되살림의 가치를 함께 전하기 위해 정한 날로 올해 두번째 행사를 치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기건설기업(주)한백 임직원들은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더했고 물품기부 뿐 아니라 나눔기금 300만원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또 김명순활동천사 가족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 나눔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모아진 기금은 광산구가족센터, 광산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광산구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가방 및



신발을 지원, 새학기를 응원하는 나눔기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주)한백 윤우람 대표는 “아름다운가게와의 협업으로 자원 재순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일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순환과 나눔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 ‘역사골든벨’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은 지난 30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회 푸르넷 역사골든벨’을 열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 전지역 푸르넷 공부방 소속 초·중등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푸르넷 교사들이 직접 준비해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중하게

답을 쓰며 열띤 경합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ダンス 공연과 학부모들의 응원이 어우러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골든벨을 올린 문흥중앙초등학교 5학년 조성준 학생은 “푸르넷에서 열심히 역사공부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쁨을 전했다. /김디인 기자 kdi@

광주여성영화제 후원행사 ‘술찬한 밤’ 개최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29일 자비신행회 1층 나눔홀에서 후원행사 ‘술찬한 밤’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영화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광주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화제의 성격과 활동을 알리고 신규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우 지정남이 사회를 맡은 토크쇼에서는

후원회원 ‘귀득이’들과 함께 영화제의 의미와 후원자의 가치를 나눴으며 강숙향·한신희의 공연, 사진 작가가 함께하는 프로필 촬영 등이 이어졌다.

김재희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장편 공모전을 신설하고 후원금은 공모전 상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광희 광주과기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소재공학부 이광희<사진> 교수가 창업한 ㈜리셀이 ‘제2회 기후에너지 혁신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 혁신상’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다.

올해 시상식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총 8개 수상 기업 중 ㈜리셀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상위 4개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호우 피해 농가 환경 정화 활동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최근 경영기획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 노안면 농가를 방문, ‘ESG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비닐하우스 정리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제공>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10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	30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보보보 좋아 좋아 스페셜 45 배베핀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45 미니미니 미니니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K-히어로 트웰브 55 불편해도 괜찮아 7(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키즈 펫 도감(재) 55 2시 뉴스 외전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0 캐리와 친구들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재) 30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세 개의 시선(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2 1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트로트 클라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토740	5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셉템브라의 비밀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00 이유 있는 건축 공간여행자	00 섬총각 영웅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5 아이 러브 스포츠	20 PD수첩	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영상앨범 산(재)	10 살리는 밤(재)	20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문화스케치(재) 50 생활의 발견	30 스튜디오 K 스페셜	45 MBC 뉴스 25	05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의 유혹
-비현실의 붉은 사막, 나미브>
07:00 슈퍼월드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덩동댕 덩동댕
08:20 지구 영웅 반개맨
08:50 메탈카드봇 S 강철의 귀환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서정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품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록S
16:10 덩동댕 덩동댕(재)
16:30 지구 영웅 반개맨(재)
17:00 페퍼 피그
17:1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음 7월 11일 甲戌) ☎ 010-9790-8237

36년생 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48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자. 72년생 무절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84년생 허장성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96년생 선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71

37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49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61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73년생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만 한다. 85년생 몸이 뻐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형상이다. 9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66

38년생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50년생 상호 간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62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74년생 객관적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86년생 현재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98년생 참으로 값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77

39년생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51년생 상대의 마음 씀씀이가 자신의 심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63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75년생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는 상상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87년생 희망의 물질을 트는 변화가 나타난다. 99년생 추이를 보고 진퇴를 결정하자. 행운의 숫자 : 36, 76

40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52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도다. 64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6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로다. 88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00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2, 55

41년생 상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53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65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77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89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01년생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02, 57

42년생 변역의 순풍과 함께하고 있다. 54년생 진행되고 있는 현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66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78년생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뒤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90년생 구조적인 모순 관계에 놓여 있도다. 02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7, 68

43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55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67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79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91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생 도움이 될 것이니라. 03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6, 82

44년생 현재의 국세로는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56년생 본디대로 대항이 나올 것이니라. 68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보인다. 80년생 남을 의식하며 내밀게 행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세이다. 92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옳다. 04년생 잘 살 피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46, 63

45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담하게 된다. 57년생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69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81년생 지난날의 공적이 인정되어 호평을 받게 된다. 93년생 어둠이 사라지면서 밝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05년생 반드시 억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8, 62

46년생 아차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58년생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에 신경 써야만 한다. 70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느니라. 82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리라. 94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06년생 분명히 해둬야 뒤따라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2, 83

47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59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전 낫다. 71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83년생 천성과 습관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95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07년생 쌓아올리다 보면 완성한다. 행운의 숫자 : 44, 67